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1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2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3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4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후렴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2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4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탄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 담당

8/9(화)	8/10(수)	8/11(목)	8/12(금)	8/13(토)	8/15(월)
이교용 집사	조왕영 집사	고재학2 집사	권인영 집사	류광언 집사	김경원1 집사

2022년 8월 8일(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최유진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78장 다 같 이
기 도 이형수 집사
성 경 봉 독 역대하 3장 15~17절 인 도 자
찬 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새벽찬양대
설 교 『야긴과 보아스』 최유진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259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역대하 3:15~17>

15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삼십오 규빗이요 각 기둥 꼭
대기의 머리가 다섯 규빗이라

16 성소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백 개를 만들
어 사슬에 달았으며

17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
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참고구절

<역대하 3:2,3>

2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3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
로 길이가 육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며

<열왕기상 6:2,38>

2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육십 규빗이요 너
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삼십 규빗이며

38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칠 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누가복음 5: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2년 8월 8일(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호흡이 있는 이 순간도 제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단하고 외로운 길에도 주님이 눈물을 닦아 주시고, 따뜻하게 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사람에게 실망해도 다시 일어나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힘 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물줄기를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하고, 기쁜 일을 만날 때 함께 찬양하는 새문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기쁨이 배가 되고, 고난이 반으로 줄어 들 것을 믿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교역자와 선교사의 사역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문안교회의 간절한 소망인 헌당예배를 속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행복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의 샘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이 위험한 시대에 죄의 뿌리가 뽑혀지게 하옵소서. 수많은 종교인을 키워내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신자(信者)를 세우는 한국교회가 되게 성령의 광풍(光風)을 일으켜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시름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